

경제포커스

■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

양재섭(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 도시 창조지수 및 창조집단의 분포 특성으로 본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

신성희(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시 창조지수 및 창조집단의 분포 특성으로 본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

신성희*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shin06@idi.re.kr

I. 거대도시가 지향하는 도시재생 전략의 전제

최근에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및 창조도시(creative city),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라는 개념들이 정책영역에서 속속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신규 개념들은 종래의 도시정비, 재개발, 신도시건설, 문화산업 등의 용어들 보다는 한결 신선한 느낌을 주며 보다 복합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도시재생’¹⁾은 도시가 안게 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서 ‘장소의 선택적 조성과 자산화,2006’의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
- <인천의 역사-문화-창조 콘텐츠를 고려한 문화산업 육성방안,2006>, <도시정체성 형성을 위한 ‘과거’의 선택적 복원 과정,2006>, <창조적 인력이 모이는 장소의 특징과 사례,2006> 등

1)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문화정책은 본격적으로 복지, 의료, 교육 등 기타 공공정책분야와 연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특히 문화자원의 가치를 다면적으로 평가한 다음 그러한 것들을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많은 창조적인 도시들이 경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를 활용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1980년대에 경시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거나 실험적인 문화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자원 배분, 사람들의 잠재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사회참여와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언급되어야 하겠다.

에 문화적이며 소프트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 ‘창조도시’는 경제·사회적, 문화·지리적 논리가 고르게 융합되어 탄생한 개념이다.

특히 ‘도시재생’ 전략은 기본적으로 철강, 석탄, 제조업 등의 산업을 기반으로 과거에 번영을 누렸던 유럽의 중소규모의 구산업 도시들이 지역기반산업의 몰락과 함께 인구의 급감, 도시환경의 쇠락과 지가하락, 기업과 투자의 유출 등 도시전체가 총체적 위기를 겪게 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고 재활하려는 생존 전략에서 출발하였다. 침체와 몰락의 일로에서 자생적인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희생하고 있는 도르트문트, 빌바오, 게이트헤드, 셰필드 등의 해외 도시재생 사례들은 이제 우리나라 도시정부들이 중요하게 분석해야 할 연구대상이자 전망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인천, 대구, 마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항만, 제조업 기반의 지방 중소 도시들은 해외의 도시재생 전략을 꼼꼼히 참조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단계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큰 것도 사실이다. 또한 도시재생이라는 맥락에서 문화정책을 실시한 것이 창조성과 문화적 가치를 모든 산업에 침투시킴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질적 도약을 가져온 것도 분명한 성과이다.

하지만 실제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찬사’와 ‘비판’이 첨예하게 공존하고는 있다. 가령, 도시재생사업이 문화정책과 결합하면서 주로 대형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오페라 하우스 등)의 마련에 초점을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건설비, 유지 및 관리, 운영 등에 대한 막대한 지출과 부담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제 도시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다각적인 발전을 축소하는 경향으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도시재생이 주로 취한 문화전략은 지역 내부의 역사·문화·자연을 상품화하여 외부로 대상으로 하는 ‘소비’ 지향적 효과를 지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나 평가도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도시재생의 효과가 주로 저임금, 파트타임, 미숙련 노동인력에 한정되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리기는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서울이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 벤치마킹 사례로서 널리 알려진 유럽의 구산업 중소 도시들과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른 대도시로서의 전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울은 여전히 중요하고 강대하며 따라서 과잉·과밀화에서 과생하는 각종 문제를 안게 된 도시이다. 동시에 서울은 천만명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인구 규모를 비롯하여 각종 자산과 권능, 최고의 맨파워 등 대도시가 지닐 수 있는 모든 이익이 최대한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거대 도시인데, 이처럼 중요한 출발점이 종종 간과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고도화 하여 국제화시키는 것 즉,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내부요소를 육성하고 외부요소를 유치하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곳을 창조적으로 개선하여 전자의 목표를 공간적으로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이중적 방향에서 도시재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도시의 이중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전략의 추진은 결국 ‘창조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구체화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보유한 경쟁력을 훨씬 고도화 시키면서 국지적인 장소들의 탈바꿈으로 이어지는 창조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과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II.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그들이 모여드는 ‘곳’에 주목

이제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시대에서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경제’ 시대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는데 플로리다(Florida)는 이러한 창조형 경제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요인을 ‘창조적인 사람들(creative class)’로 진단하고 있다. 때문에 플로리다는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인력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이들 창조집단의 창조성을 도시의 공간으로 확장 침투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일차적으로 개인 차원의 창조성을 진흥하는 작업에서 출발하여 조직과 공간 및 도시 전체로 파급시킬 수 있는 창조환경(Creative Milieu)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를 주도하는 창조적인 집단이 선호하고 모여들 수 있는 장소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의 창조적인 집단이 보다 집중하고 있는 곳, 그리고 창조성이 높은 도시들의 특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지역경제학자 플로리다(Florida)의 분석을 토대로 창조도시로 나아가는 도시들의 특성을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의 창조적 인력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창조도시로 나아가는 도시들의 특성

플로리다는 현대경제의 새로운 담당자로서의 「창조계급」의 등장과 부상에 주목하여 그들의 기질과 일 및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분석하고, 창조계급이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이야말로 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곳임을 구체적인 지표로 근거로 밝혀냈다. 그의 연구의 출발시점 역시 지역경제의 위기시점이다. 산업도시 피츠버그(Pittsburgh)가 연달아 대형 공장이 철퇴하고 실업자가 체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산업의 입지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성장이 두드러진 하이테크 산업의 입지요인이 창조적 인재임을 밝혀내고, 지역재생의 열쇠는 공장의 유치가 아니라 어떻게 창조적인 인재를 그 지역으로 유인해 내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플로리다는 정책적 제언으로서 창조적 커뮤니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의 사회적 구조」, 특히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환경(milieu)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로버트 푸트남(Robert D. Putnam)이 주창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보다 「창조자본」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창조도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미국적인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창조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성(Tolerance)이라는 3T 전략에 입각하여 도시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플로리다의 주장은 많은 점에서 시사적이다(임상호, 2006). 그는 창조적인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그 도시만의 진정성과 개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게이처럼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tolerance)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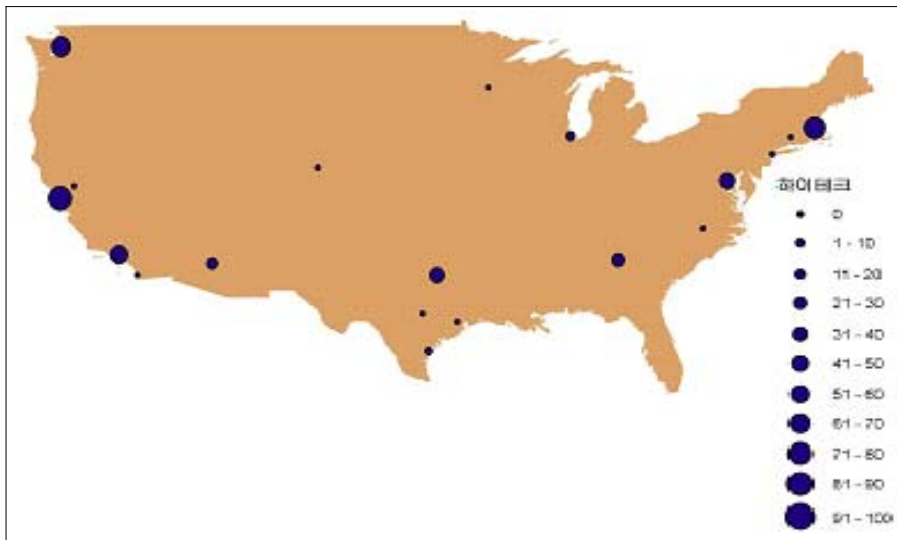
1) 미국 - 3T 지수별 창조도가 높은 도시의 특징

아래 그림은 플로리다(Florida, 2002, 381~389)가 어떤 도시의 창조도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세 가지 지표인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성(Tolerance)의 지수를 토대로 하여 도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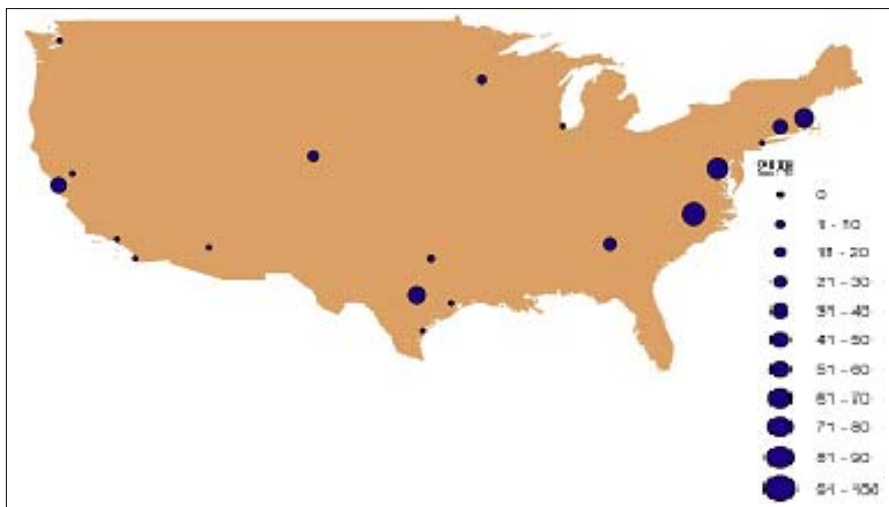
우선, 창조적 계급이 대거 몰리는 지역들은 혁신과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이다. 하이테크의 선도 지역들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이다(<그림1>). 그리고 혁신 선도 지역으로는 로체스터,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보스턴 로리더럼이다.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실리콘 벨리와 같은 산업 클러스터 형식으로 첨단 산업들과 연구기관이 밀집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과 하이테크 산업이 창조적 인재와 강한 연관

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lorida, 2002,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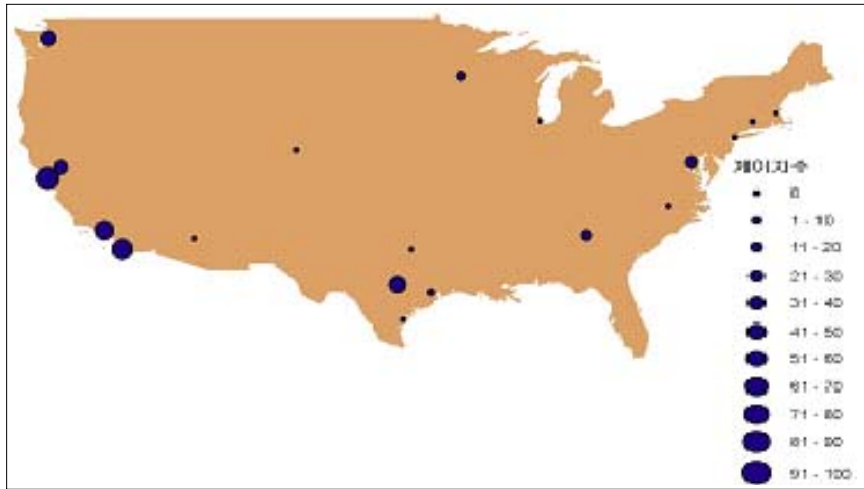
또한 더 작은 대학 도시들이 인재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타페, 매디슨, 캠페인 어바나, 펜실베이니아주, 스테이트 칼리지,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이 그것이다 (<그림2>).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중심지는 하이테크 산업, 혁신, 인간자본, 고용증가가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계급의 지역 또한 성장의 수준이 낮으며 이러한 도시에서는 창조적 도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창조적 계급의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대부분 고등교육 이상인 반면에 노동계층에서는 인간자본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Florida, 2002,372~383).



<그림 1> 기술 지수가 높은 미국도시들(Florida, 2002, 381~389 토대로 도해함)



<그림 2> 인재지수(Florida, 2002, 381~389 토대로 도해함)



<그림 3> 게이 지수가 높은 미국 도시들 (Florida, 2002, 381~389 토대로 도해함)

플로리다의 ‘게이(gay)지수’는 유럽에 전통적인 고급문화를 지향하는 엘리트층이 아니라 보다 개방적이며 이동성이 높은 인구집단의 창조성을 나타낸다. 위의 <그림 3>에서 보듯 게이 지수가 높은 미국 도시로는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 주로 서쪽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동부에서는 게이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플로리다의 분석에 의하면 기술지수와 인재지수는 지역적으로 상관성이 있다. 샌프란시스코나 오스틴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성장지역은 두 지표가 모두 높아지고 있다.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같은 안정된 동부 지역 역시 창조적 지수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인재지수와 하이테크 지수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반면에 창조성 지수는 큰 도시에 이점이 있지만 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다. 더 작은 지역들-산타페, 매디슨, 올버나-은 창조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 (Florida, 2002, 373~374)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으로서 플로리다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음으로 해서 형성되는 창조적 자본력이란 지역발전이 경제발전의 3T가 모두 ‘함께’ 존재할 때만이 발휘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볼티모어,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에는 기술기반과 세계적인 대학도 있지만 별다른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이 최고의 창의적인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토착화할 만큼 관대하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Florida, 2002, 382). 또한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같은 도시들이 생활양식의 메카임에도 기술기반이 결핍되어 있기에 창조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그림 4〉 창조성 지수가 높은 도시 분포(Florida, 2002, 381~389 토대로 도해함)

2) 국내 - 창조적 인재의 분포와 특징 - 7대 광역시간 비교

플로리다가 「창조계급(creative class)」이라고 지칭한 사회계층은 「창조의 핵」 부류와 「창조적 전문직」으로 나뉘며, 전자는 <컴퓨터·수학, 건축·엔지니어, 생명·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교육·훈련·도서관, 예술·디자인·엔터테인먼트·스포츠·미디어> 분야로, 후자는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법률, 보험의·기사, 세일즈·매니지먼트>의 각 전문직 종에 의해 구성된다. 1999년 전자는 1,500만 명으로 미국의 취업자 전체의 12%, 후자를 포함하는 「창조계급」 전체는 3,830만 명에 이르며 취업자 전체의 30%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창조계급」의 중심이 되는 「창조의 핵」 부류는 IT 및 바이오 등의 자연과학계의 연구 개발 분야와 혁신(Innovation)에 관계된 직업군뿐만 아니라, 영상·음악·무대예술·미디어 아트 등 예술계의 직업집단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고급 인력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래 표는 지역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납부액을 조사한 것인데 이중 표에 나타난 '5등급 가입자'는 소득월액이 3,450,000원 이상인 사람들의 수치로서 전체 급여소득층의 상위10%안에 포함되는 고소득층에 속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45등급 가입자 수치로 지역간 고임금 인력들의 분포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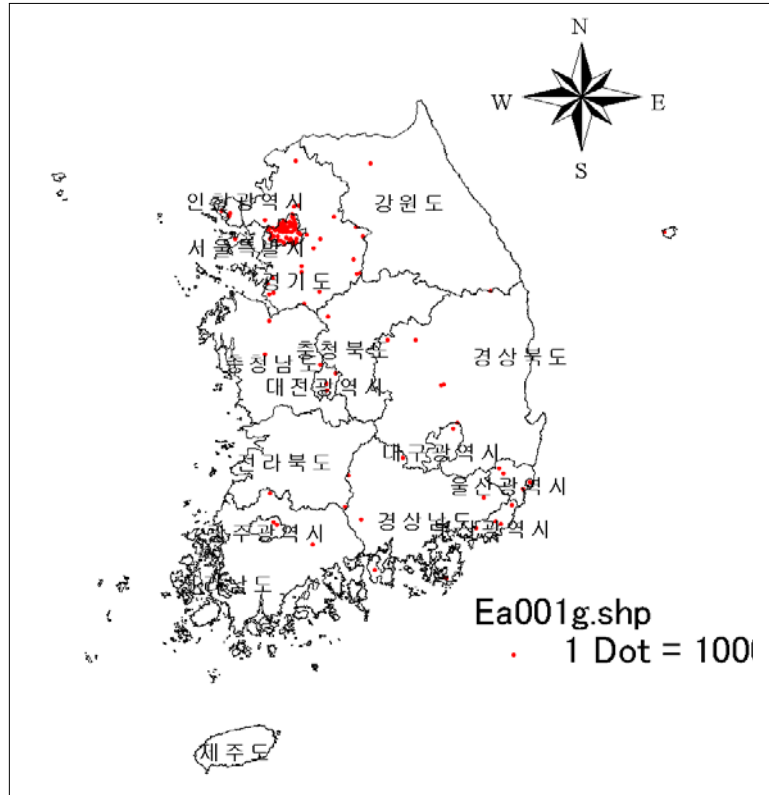
이들의 지역적 분포 상황을 보다 공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 표에 나타난 자료를 도해하여 보았다(〈그림5〉).

〈표 1〉 지역별 국민연금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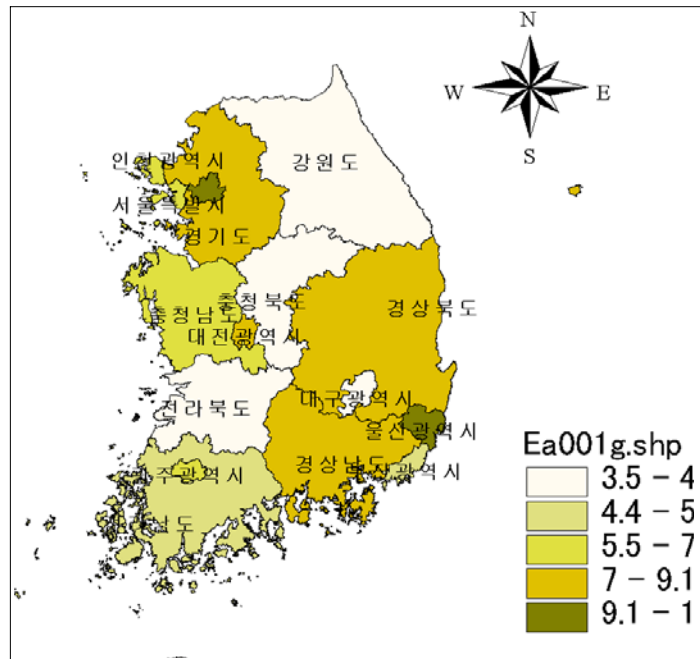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총가입자		45등급 가입자		45등급가입자 비중(B/A)
	가입자 수(명)(A)	비중(%)	가입자 수(명)(B)	비중(%)	
서울	3,909,991	31.3	664,804	51.6	17.0
부산	803,198	6.4	44,569	3.5	5.5
대구	520,365	4.2	21,931	1.7	4.2
인천	569,019	4.6	39,842	3.1	7.0
광주	295,044	2.4	19,428	1.5	6.6
대전	306,242	2.5	27,926	2.2	9.1
울산	264,931	2.1	44,768	3.5	16.9
경기	2,434,657	19.5	211,805	16.4	8.7
강원	290,531	2.3	10,923	0.8	3.8
충북	326,479	2.6	14,381	1.1	4.4
충남	453,096	3.6	27,355	2.1	6.0
전북	369,921	3.0	13,782	1.1	3.7
전남	390,330	3.1	19,224	1.5	4.9
경북	661,386	5.3	59,120	4.6	8.9
경남	778,676	6.2	64,073	5.0	8.2
제주	116,124	0.9	4,038	0.3	3.5
합계	12,489,990	100.0	1,287,969	100.0	10.3

주 : 지역가입자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림 5〉 고소득 임금 노동자의 분포-국민연금 45등급 가입자 수(B)-전국 시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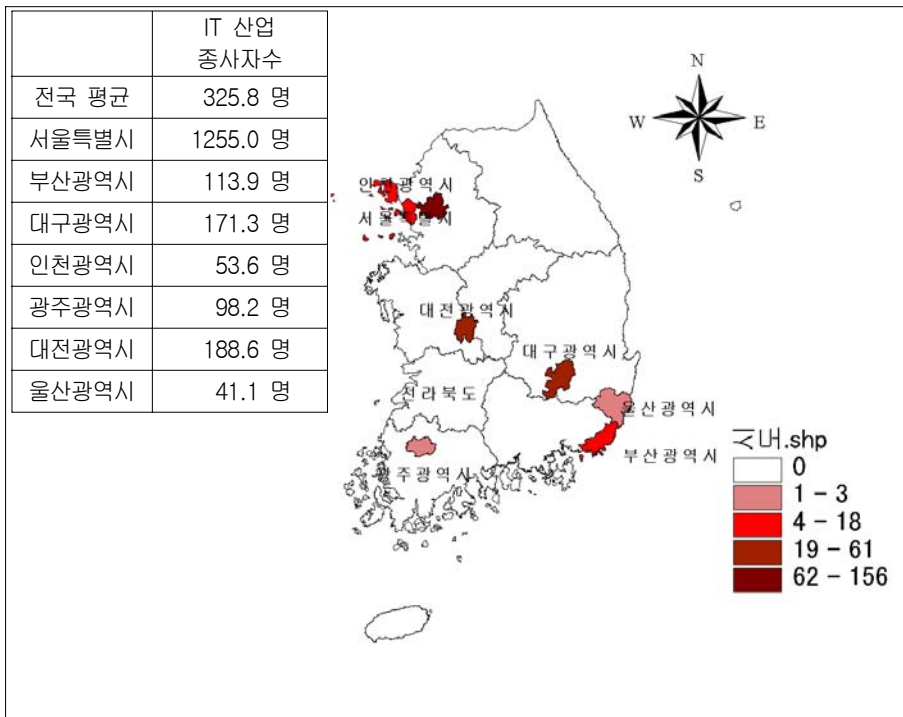
<그림 6> 총가입자 대비 45등급 가입자 비중(B/A) - 전국 시도별

위 <그림 5>에서 보면, 이들 고임금 인력들은 특히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 대도시간 비교를 해보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임금 소득의 격차가 현격히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보다 고임금 인력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나타난다.

위의 그림은 국민연금 총가입자 대비 45등급 가입자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역시 전체적으로 이른바 경부축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타 광역시에 비해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그 비중이 낮다. 또한 제주도, 전라남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역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통계 수치상, 총가입자 비중 및 45등급 가입자 비중 양쪽 모두 이중으로 낮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도시들 간, 창조적인 집단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7대 광역시들의 IT산업과 문화산업 관련 각각의 핵심 분야의 종사자 비중을 분석하고 분포특성을 도해한 것이다(<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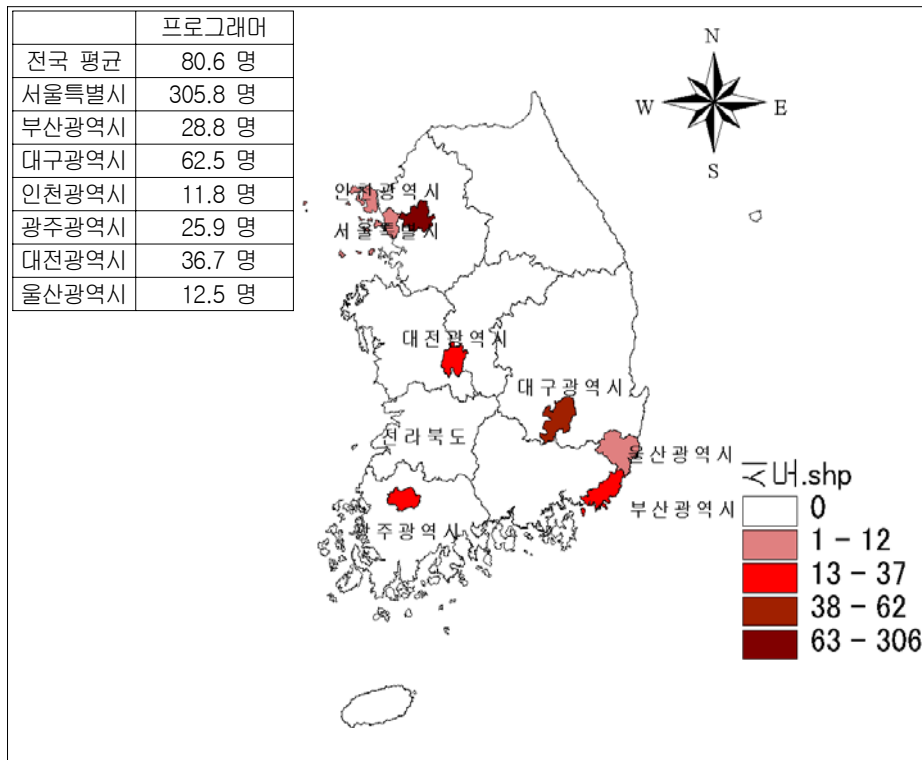
7대 광역시들 간 IT 관련 연구인력 종사자의 비중은 서울, 대전, 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상대적으로 울산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자료: “시도/산업/직능별 종사자 현황” (통계청)에서 재작성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72)” 에 해당하는 종사자 임
 <그림 7> 7대 광역시 인구 10만 명당 IT산업 종사자 비중 비교 - 연구인력

대전시의 IT관련 연구인력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첨단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밸리의 영향과 관계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IT 관련 연구인력 종사자 비중에 관하여 울산과 광주의 두 도시가 그 비중이 낮은 유사한 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 중 울산은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 기존의 중공업 및 제조업 중심인 것에서 위의 도해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래머(programmer)들은 미래지향형 첨단 산업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담당하고 있는 창조계급을 이루는 대표적인 집단으로서, 이들 프로그래머들의 지역적 분포를 분석하는 방식은 지역 간 창조적 생산성의 고도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IT 산업 종사자 중 프로그래머 역시 서울이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그림8>). 반면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IT 산업 종사자 중 프로그래머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와 대전, 부산광역시 역시 프로그래머들 종사자 비중이 높다. 위 지도에서 보았을 때,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타 광역시보다 비교적 프로그래머 인구가 상대적으로 낮다.



자료: “시도/산업/직능별 종사자 현황” (통계청)에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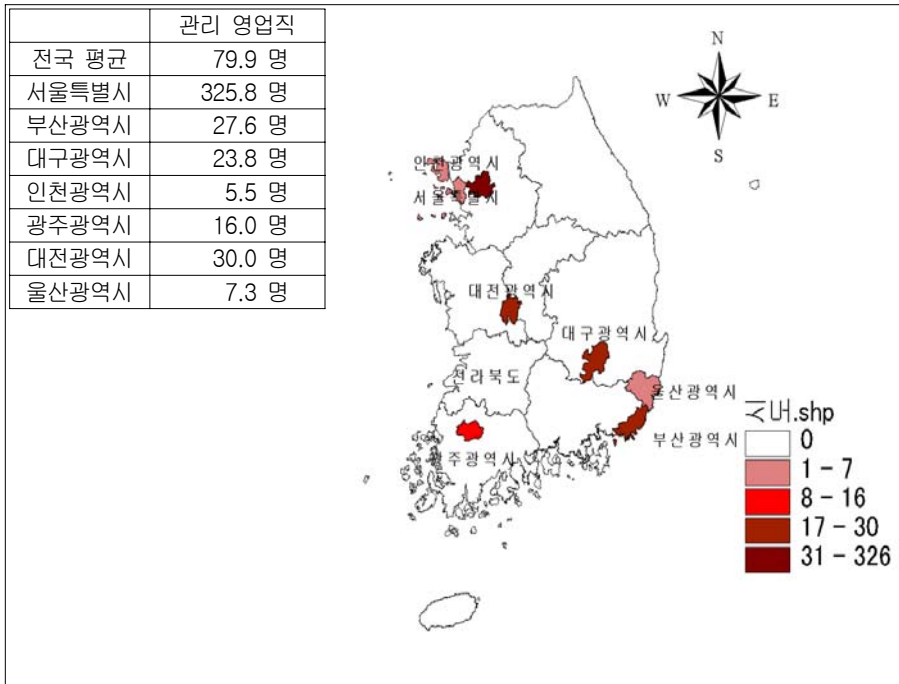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72)” 에 해당하는 종사자 임

<그림 8> 7대 광역시 인구 10만 명당 IT산업 종사자 비중 비교 - 프로그래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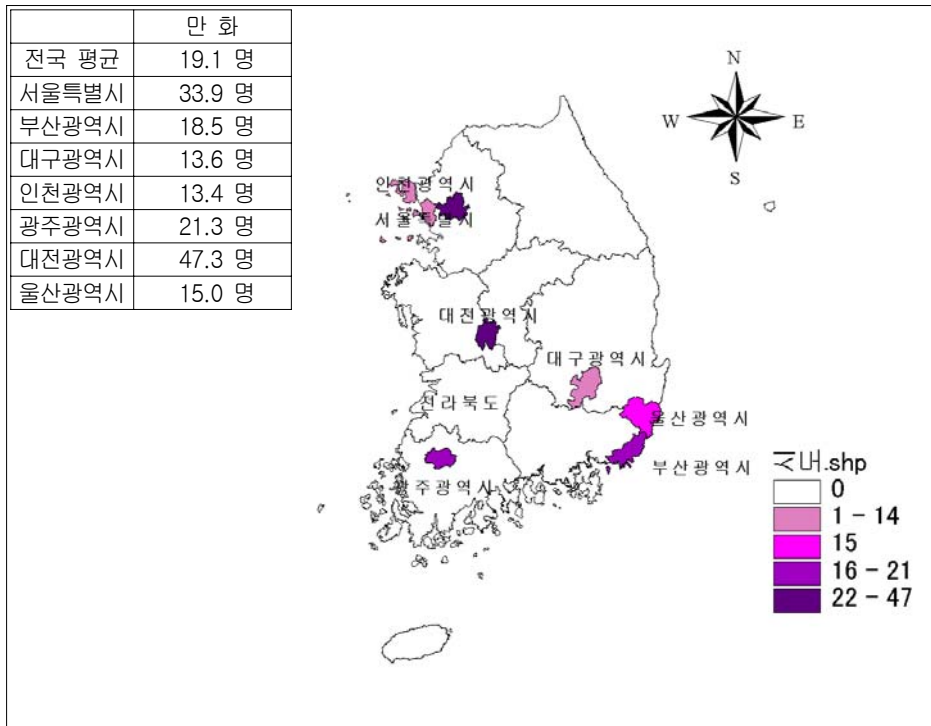
IT업계의 관리·영업직은 상대적으로 보다 고소득층, 고학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도화된 고급 창조계층으로 분류가능하다.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 인천과 울산의 IT 업계 관리 영업직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한편 이른바 경부축을 이루는 4대 대도시들에서는 상대적으로 IT 관련 업계 관리·영업직의 비중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IT업계의 관리·영업직의 종사자 비중의 분포를 도해한 아래 <그림 9>의 결과를 통해서, 창조적 계층 내에서도 창조적 생산성이 보다 고도화된 고소득 인력들은 보다 집중하는 지역이 있고 일련의 분포 패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화산업은 창작과 인쇄, 문학과 미술,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 산업 등 아날로그적 창작의 원천에서부터 디지털 이미지에서 영화산업으로까지 무궁무진한 확장이 가능한 대표적인 ‘원소스멀티유즈(OSMU)’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 아날로그적 창작기반의 확충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유망한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전망된다. 그러므로 만화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추후 활발한 문화적, 창조적 활동의 잠재성이 높은 곳으로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만화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서울이 아니라 대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그림10>).



자료: “시도/산업/직능별 종사자 현황” (통계청)에서 재작성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72)” 에 해당하는 종사자임
 <그림 9> 7대 광역시 인구10만 명당 IT산업 종사자 비중 - 관리 영업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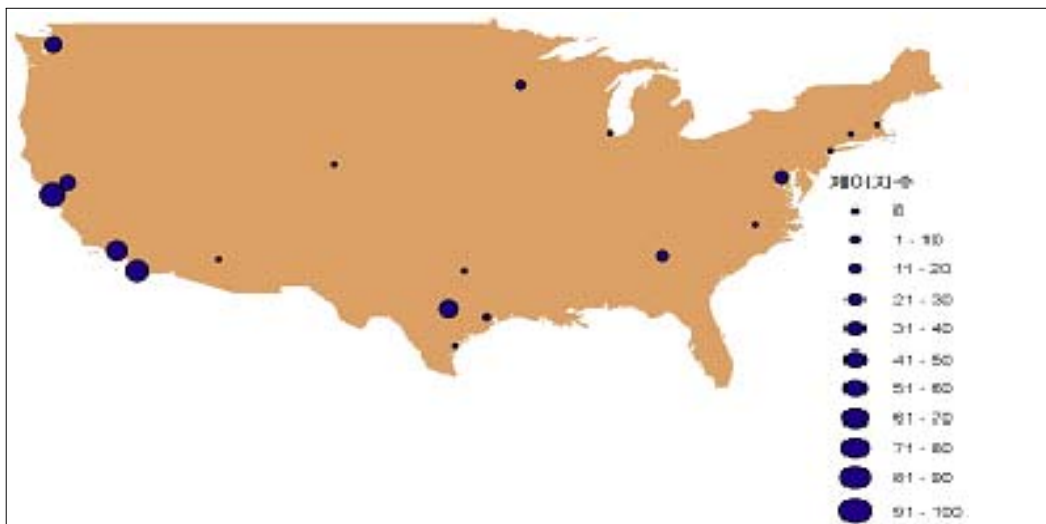
자료: “2005 문화산업통계(문화관광부)에서 재작성
 <그림 10> 7대 광역시 인구10만 명 문화산업 종사자 비교 - 만화

III. 창조도가 높은 도시들의 특성과 시사점

경제학자인 플로리다는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도시의 분포를 단순한 통계표로 나타냈기 때문에 창조성과 관련 있는 지수가 ‘어디에’ 높게 나타나는지, 다시 말해 창조 도시들은 “어디에” 위치하는 특성을 보이는지, 혹은 “왜 거기에서” 창조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세 가지 창조지수 가운데 특히 <게이지수>는 전통적인 고급문화를 지향하는 엘리트층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이동성이 높은 그리고 대단히 창의적인 인구집단의 집중도를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게이지수>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모여드는 장소의 특징을 분명히 드러내 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성적 소수자라는 사회적으로 쉽게 포용되기 힘든 집단조차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며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매우 강하게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의 장소에서는 그 사회와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성적소수자들이 모여서 일하고 거주하고 즐길 수 있다면, 그 곳은 다름에 대한 인정하는 태도와 포용력이 높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정책에서 새로운 사업이 쉽게 시작될 수 있고 그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지역의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새로운 사람들이 모든 사회적, 경제적 서열에 수용되는 지역은 높은 창조성 지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림 11> 게이지수가 높은 도시들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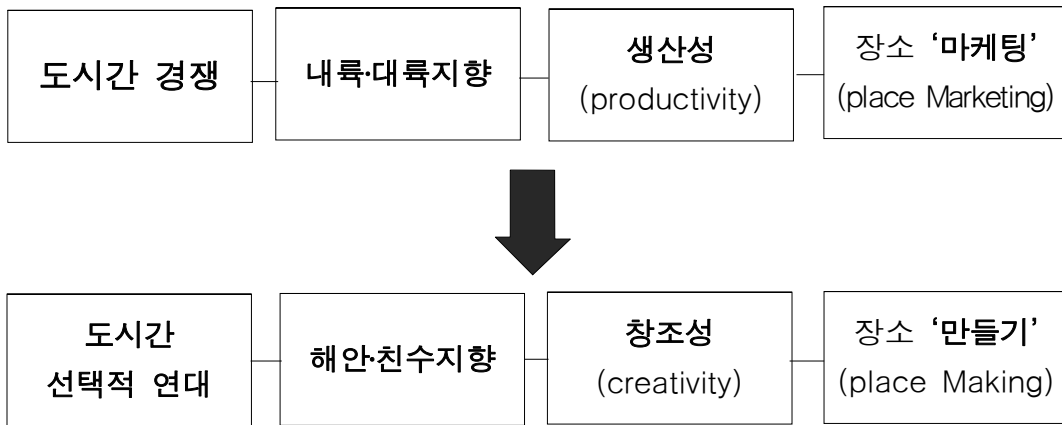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창조적인 집단은 현재 대부분의 핵심 인재와 고임금 인력은 절대적으로 ‘서울’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형 창조경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해 내는 창의성과 기술력을 지닌 창조적인 사람들은 플로리다 역시 지적하였듯이 높은 이동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 글에서는 IT, CT산업 관련 핵심분야의 종사자만을 추출하여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그 분포 상태를 고찰하는 것에 그쳤으나, 추후 이들 창조집단은 서울에만 안착하지 않고 그들이 선호하는, 그들의 실력이 가장 잘 발휘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찾아 다양한 지역과 장소들로 이동하고 정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창조지수가 높은 도시들은 대부분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왜 특히 해안지역에 입지한 도시들이 높은 창조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은 추후 요구되는 흥미로운 연구의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본의 기타큐슈 시립대학 도시정책연구소에서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들의 입지특성을 분석한 바 있는데, 그 결과 하천변, 해안가 등의 입지자체는 ‘높은 집객력(集客力)’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内田片岡, 2006). 해안 및 수변은 육지와 바다(물)이라는 각각의 독특한 지리, 환경생태적, 인문적 특성을 가진 세 개의 공간영역이 결합하는 곳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해안지역이나 물을 곁에 둔 수변지역은 이러한 공간적 다양성이 극대화된 장소이다. 따라서 <그림 12>의 도해결과는 이러한 입지 및 공간적 이점은 창조도시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함의를 준다.



<그림 12> 해안에 집중 분포하는 미국의 주요 창조도시들



〈그림 13〉 창조도시로 나아가는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서울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친수(親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친수공간이나 수변개발과 활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간적 다양성과 소통 및 교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양지향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해양도시와의 유기적인 연대가 구축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인천은 전통적으로 서울의 외항도시로서 서울을 해양과 연계하여 왔다. 북한의 제1도시 평양 또한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포시는 인천과 같이 평양과 바다를 이어주는 외항도시로서 기능하여 왔다. 결국 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은 도시로서 지닐 수 있는 최대한의 잇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도시와 도래하는 서해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해안 지방도시와의 창조적인 연계에 대한 주목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상철(2005),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6호, pp.571-584.
- 문성배·홍동표(2005), "IT투자와 기업조직의 상관관계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신성희(2006), 장소의 선택적 조성 과 자산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성희(2006), "집객공간의 조성 기법과 사례분석," 기타큐슈시립대학-인천발전연구원 연구교류 발표회 자료집.
- 신창호(2003),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2003.
- 이은우(1997), "지역간 삶의 질 차이와 인구이동과의 관계. 『경제학논집』, 제7권, 2호, pp.233-253.
- 임상오(2006), "창조산업의 재료로서 지역문화와 도시공간의 활용," 인천광역시 문화정책 토론회 자료집, pp. 92-104.
- 佐々木雅幸(2004), 『創造都市への挑戦』. 岩波書店, 2001.; 韓国訳, 小花.
- 内田片岡(2006), "次世代/向集客力都市关联研究," 기타큐슈시립대학-인천발전연구원 연구교류 발표회 자료집.
- A. J. Scott(2006), "Creative Cities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Questions. Journal of Urban Affairs, 28.
- Amsden(1989), A.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Florida. R.(2002), Creative Class. 이길태(역),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 Landry. C.(2000), The Creative City :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 Comedia.
- Wade, R(1990), Governing the Market :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